

『히카루의 바둑』과 일본의 바둑 문화*

김 청 균**

(e-mail : kgsiga321@hanmail.net)

目 次

1. 서론
 2. 혼인보와 일본의 바둑 전통
 3. 후지와라노 사이의 조형의 의미
 4. '신의 한 수'와 바둑의 국제화
 5. 결론
-

1. 서론

홋타 유미(ほったゆみ) 원작, 오바타 다케시(小畑健) 그림, 우메자와 유카리(梅沢由香里) 감수의 『히카루의 바둑(ヒカルの碁)』은 일본의 『주간 소년 점프(週刊少年ジャンプ)』에 1998년 1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연재되어 크게 히트한 만화이다. 단행본으로는 1999년 4월부터 2003년 9월에 걸쳐 슈에이샤(集英社)에서 점프 코믹스판(ジャンプ・コミックス版)이 전23권으로 간행되었으며,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에 걸쳐서는 슈에이샤에서 완전판 전20권이 간행되었다. 『히카루의 바둑』은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어 일본의 TV도쿄(テレビ東京) 계열에서 2001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절찬리에 방영된 바 있다. 그리고 이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번역¹⁾, 소개되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2-A00019)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연구교수

1) 만화 『히카루의 바둑(ヒカルの碁)』은 점프 코믹스판의 한국어 번역본이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제목으로 2003년 3월부터 2003년 9월에 걸쳐 전23권으로 서울문화사에서 출판되었다. 그리고 2011년 4월에는 완전판 전20권 중 제1권의 한국어 번역본이 『히카루의 바둑』 완전판 제1권으로 각각

어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본 바둑의 여러 측면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 대하여 바둑관을 비롯한 바둑 문화 등을 시야에 넣은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히카루의 바둑』에 관한 서적으로는 히카바둑연구회(ヒカ碁研究会)의 『『히카루의 바둑』의 비밀(『ヒカルの碁』の秘密)』, 이시쿠라 노보루(石倉昇)의 『히카루의 바둑 승리학(ヒカルの碁勝利学)』, 요시다 나오키(吉田直樹)의 『아이를 키우는 바둑학력-『히카루의 바둑』으로 시작하는 교육술-(子供を育てる碁学力-『ヒカルの碁』から始める教育術-)』 등이 있다. 히카바둑연구회의 『『히카루의 바둑』의 비밀』은 히카루(ヒカル), 사이(佐為), 아키라(アキラ) 등, 『히카루의 바둑』에 등장하는 인물의 캐릭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²⁾, 이시쿠라 노보루의 『히카루의 바둑 승리학』은 『히카루의 바둑』의 내용 소개와 함께 바둑이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³⁾ 그리고 요시다 나오키의 『아이를 키우는 바둑학력-『히카루의 바둑』으로 시작하는 교육술-』은 바둑의 교육적 효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의 권말(卷末)에는 『히카루의 바둑』의 원작자 홋타 유키와 감수자 우메자와 유카리의 특별 대담이 마련되어 두 사람이 『히카루의 바둑』을 비롯한 바둑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⁴⁾ 그 외에 미즈구치 후지오(水口藤雄)는 일본 바둑사의 여러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바둑의 문화지(囲碁の文化誌)』에서 『히카루의 바둑』으로 시작된 바둑 붐에 대해 언급하여 “지금이야말로 붐에 도취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확실한 뒷받침이 중요하다”⁵⁾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정수현은 『바둑학개론』에서 『히카루의 바둑』이 영상화된 대본을 바둑 회곡의 예로 들어 바둑문학의 장(章)에서 소개하였다.⁶⁾

이상, 『히카루의 바둑』에 관한 관련 서적을 개관하였으나, 이들 서적은 바둑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 대부분으로 『히카루의 바둑』이란 작품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다지 행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히카루의 바둑』을 일본의

서울문화사에서 간행됨으로써 완전판 또한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완전판의 한국어 번역본은 2011년 8월 현재, 제8권까지 서울문화사에서 간행된 상태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히카루의 바둑(ヒカルの碁)』의 한국어판은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타이틀로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KBS 제2TV에서 방영된 바 있다.

2) 히카바둑연구회 『『ヒカルの碁』の秘密』データハウス, 2002, pp.1-217

3) 石倉昇 『ヒカルの碁勝利学』集英社インターナショナル, 2002, pp.1-207

4) ほったゆみ・梅沢由香里 「特別対談：子どもたちに伝えたい〈碁〉の魅力」, 吉田直樹 『子供を育てる碁学力-『ヒカルの碁』から始める教育術-』集英社, 2009, pp.165-180

5) 水口藤雄 『囲碁の文化誌』日本棋院, 2002, p.199

6) 정수현 『바둑학개론』에듀컨텐츠, 2011, p.89

바둑 문화와 관련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고찰을 통하여 이 작품은 일본 바둑의 전통을 찬미하고 바둑을 도(道)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또한 바둑의 국제화에 대해 이 작품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히카루의 바둑』의 텍스트로서는 슈에이샤 간행 『히카루의 바둑』 완전판 전20권7을 사용하였음과, 일본어 문헌으로부터의 인용 시 한국어역은 모두 본고의 필자에 의함을 밝혀 둔다.

2. 혼인보와 일본의 바둑 전통

『히카루의 바둑』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이 작품은 신도 히카루(進藤ヒカル)가 프로 기사(棋士)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는 있지만, 작품 내에는 히카루 이외에도 여러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작품 해석을 위해서 구와바라 혼인보(桑原本因坊)의 조형의 의미를 중심으로 일본의 바둑 전통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 고찰의 시작으로 우선 이 작품의 등장인물의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히카루의 바둑』의 등장인물 중 시라카와 7단, 구라타 7단의 모델에 관하여는 이시쿠라 노보루가 그 모델을 추정한 바 있다. 이시쿠라에 의하면 시라카와 7단의 모델은 이시쿠라 노보루 자신이며⁸⁾, 구라타 7단의 모델은 요다 노리모토(依田紀基)라고 한다.⁹⁾ 작중 인물 시라카와 7단과 실제 인물 이시쿠라는 그 용모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바둑 보급에도 힘을 쏟고 있는 중견 기사라는 공통점을 가지므로 시라카와 7단의 모델이 이시쿠라 자신이라는 견해는 수긍이 간다. 그리고, 이시쿠라가 구라타 7단의 모델이 요다 노리모토라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풍채 좋은 풍모”¹⁰⁾와 “천진난만한 성격”¹¹⁾인데 이 또한 수긍할 만하다.¹²⁾

7) ほったゆみ 原作・小畑健 画 『ヒカルの碁』 完全版 全20巻, 集英社, 2009-2010
(이하, 본고에서 텍스트로부터의 인용 시 텍스트의 권수와 출판년도, 페이지수를 본문 중 괄호 안에 표기하기로 한다.)
8) 石倉昇 『ヒカルの碁勝利学』, p.6
9) 石倉昇 『ヒカルの碁勝利学』, pp.73-74
10) 石倉昇 『ヒカルの碁勝利学』, p.73
11) 石倉昇 『ヒカルの碁勝利学』, p.73
12) 요다 노리모토는 1966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출생으로 1980년에 프로 기사가 되었다. 1996년에는 세계 기전(棋戰)인 삼성화재배 제1회 대회에서 우승하였고, 2000년에 일본의 3대 기전 중 하나인 명인(名人) 타이틀을 차지하고 이후 4연패(連覇)하는 등 일본의 정상급 기사로 군림한 바 있다. 신인 시절에는 이창호의 라이벌 기사로 간주되어 한국의 바둑 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기사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시라카와(白川) 7단, 구라타(倉田) 7단 이외에 모델을 추정할 수 있는 등장인물로 구와바라 혼인보(桑原本因坊)를 들 수 있다. 그는 후지사와 히데유키(藤沢秀行)¹³⁾를 연상시키는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히카루의 바둑』의 구와바라 혼인보와 일본 바둑계의 실존 인물인 후지사와 히데유키는 고령(高齡)에도 빅 타이틀을 청년 및 중년 기사들로부터 방어하는 괴력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공통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본 바둑계의 타이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 바둑계에는 여러 타이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문사가 주최하는 7개의 바둑 타이틀전을 통상 7대 기전(棋戰)이라 한다. 7대 기전은 우승 상금 순으로 기성전(棋聖戰), 명인전(名人戰), 혼인보전(本因坊戰), 십단전(十段戰), 천원전(天元戰), 왕좌전(王座戰), 기성전(碁聖戰)¹⁴⁾이며, 이 7대 기전의 타이틀 보유자는 각각 기성(棋聖), 명인, 혼인보, 십단, 천원, 왕좌, 기성(碁聖)으로 불린다. 이 7대 기전 중에서도 특히 우승 상금이 여타 기전에 비해 월등히 큰 기성전(碁聖戰), 명인전, 혼인보전은 3대 기전이라 일컬어진다. 이 3대 기전의 도전기(挑戰棋)는 일본의 여타 기전의 도전기와는 달리 7번 승부로 결정되며, 도전기의 매 대국(對局)은 이틀에 걸쳐 두어진다. 이 3대 기전에는 상금 면으로나, 타이틀전의 격식 면으로나 최대의 권위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그 타이틀 보유자가 되는 것은 일본의 프로 기사에게는 최고로 영예로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3대 기전 중 기성전은 최고의 우승 상금에 빛나는 랭킹 1위 타이틀로 평가되는데, 1977년 제1기 기성에 오른 이가 바로 후지사와 히데유키로 그는 이후 1982년까지 기성전 6연패(連覇)를 달성하였다.¹⁵⁾ 후지사와는 1925년생인 바, 그의 나이 52세에서 57세에 이르는 시기에 기성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된다. 특이한 점은, 후지사와는 기성에 올라 있던 시기에 여타 기전에서 이렇다 할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전 도전기에 있어서만큼은 괴력을 발휘하여 무려 6연패를 달성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52세에서 57세에 이르는 고령의 시기에 달성한 기성전 6연패라는 기록 외에도 후지사와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1991년에서 1992년

13) 후지사와 히데유키는 1925년 일본 요코하마시(横浜市)에서 출생하였고, 1940년에 프로로 입단하였다. 1960년대에는 사카다 에이오(坂田栄男)와 함께 일본 바둑계를 대표하는 기사로 평가되었으며, 1977년에 일본 바둑계의 최대 타이틀 기성(碁聖)을 차지하고 이후 6연패(連覇)를 달성하였다. 1991년에는 왕좌 타이틀을 획득하여 1992년까지 2연패하기도 하였다. 2009년 별세하였다.

14) 일본의 기전(棋戰) 순위는 상금 순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랭킹 1위 타이틀전인 기성전(碁聖戰)과 랭킹 7위 타이틀전인 기성전(碁聖戰)은 한국어 발음으로는 같고, 한자(漢字)만 다르나, 한국의 바둑계에서는 두 기전 공히 기성전이라 불리고 한자만으로 구분되어 왔으므로 이에 맞추어 표기하였다.

15) 주13) 참조.

까지 왕좌 타이틀을 2연패한 기록¹⁶⁾인데, 후지사와는 67세에 일본의 7대 기전 중 하나인 왕좌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는 일본에서 최고령 타이틀 보유 기록이다.

『히카루의 바둑』에 등장하는 구와바라 혼인보는 오가타(緒方) 9단, 구라다 7단 등 떠오르는 젊은 기사를 연속해서 도전자로 맞아 혼인보 타이틀을 방어한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빅 타이틀을 방어한다는 점에서, 50대 시절에 기성전 6연패를 달성하였고, 67세에도 왕좌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던 후지사위를 떠올리게 한다.

『히카루의 바둑』 완전판 제18권에서 구와바라 혼인보는 미즈누마(水沼)라는 기사와의 대국에서 패한 후, “지금 나는 체력을 비축하고 있네. 한 달 뒤에 시작될 혼인보 도전기를 위해서”, “혼인보전 7번 승부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야. 나는”(『ヒカルの碁』完全版 第18卷, 2010, p.199)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후지사위가 기성에 올라 있던 시절 혼신의 힘을 다해 기성 타이틀을 방어해 내곤 하였던 것을 연상시킨다.

이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구와바라 혼인보의 조형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구와바라 혼인보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빅 타이틀을 방어한다는 점에서 후지사위를 연상시키는 인물이지만, 『히카루의 바둑』의 구와바라 혼인보와 실제 인물 후지사위와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실제 인물 후지사위가 사력을 다해 방어해 내는 타이틀이 랭킹 1위 타이틀인 기성인데 대하여 구와바라 혼인보가 사력을 다해 방어해 내는 타이틀은 랭킹 3위 타이틀인 혼인보라는 것이다. 실제 인물 후지사위가 랭킹 1위 타이틀의 방어에 절대적인 집념을 보였던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구와바라 혼인보가 랭킹 3위인 혼인보 타이틀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방어해 낸다는 작중 설정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그 의미에 있어 고찰의 실마리를 던져 주는 대목을 『히카루의 바둑』 완전판 제7권에서 찾을 수 있다. 히카루가 일본기원(日本棋院)의 원생(院生)¹⁷⁾이던 시절 히카루를 포함한 여러 원생들이 일본기원 건물 안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구와바라 혼인보와 우연히 마주친다. 원생들은 구와바라 혼인보에게 인사를 하지만, 히카루는 구와바라 혼인보가 어떤 사람인지도, 혼인보라는 명칭의 의미

16) 주13) 참조.

17) 일본기원(日本棋院)에서는 프로 기사를 지망하는 소년, 소녀를 ‘원생(院生)’으로 받아 바둑에 정진하게 하고 있다. 원생끼리의 연간 대국(対局) 성적이 상위에 오른 이들은 프로 입단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일본기원의 원생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한국기원(韓國棋院)에는 연구생 제도가 있다.

도 모르므로 구와바라 혼인보를 그냥 지나친다. 이 때 원생 중 한명인 나세(奈瀬)가 히카루에게 “혼인보라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바둑이 센 사람이 이어 받은 이름이야. 그것이 쇼와(昭和)시대가 되고나서 혼인보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말이지. 우승한 사람을 혼인보라 칭하게 된 거야. 지금은 기성전(棋聖戰), 명인전……. 여러 타이틀이 있지만, 혼인보전이 가장 역사가 오랜 거야.”(『ヒカルの碁』完全版 第7卷, 2009, p.53) 라고 혼인보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나세는 혼인보라는 명칭이 가지는 의미를 간단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다만, 나세의 설명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인보라는 호칭의 유래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혼인보라는 명칭의 유래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6세기에서 17세기로 이어지던 시기에 닛카이(日海)라는 바둑 고수가 있었다. 닛카이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로 이어지는 패자(覇者)들의 바둑 고문격이었던 인물로 혼인보가(本因坊家)를 창설하게 되며 자신은 혼인보 산사(算砂)라 이름한다. 혼인보의 출현에 대하여는 저명한 일본 바둑사 연구자인 마스가와 고이치(益川宏一)의 견해가 참고가 된다. 마스가와는 교토(京都)의 바둑인들에 관한 기록을 많이 남겼던 야마시나 도키쓰네(山科言経)의 일기인 『도키쓰네경기(言経卿記)』의 기술(記述)을 검토하여 혼인보의 출현은 1594년부터라고 하고 있다.¹⁸⁾

에도시대(江戸時代)에 도쿠가와막부(徳川幕府)는 명인기소(名人碁所)¹⁹⁾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바둑을 보호, 육성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 혼인보가를 비롯한 여러 바둑 가문들이 경쟁하며 일본의 바둑은 크게 발전하였다. 혼인보가는 그 발전의 중심에 있는 최고의 명문이었으며 혼인보는 제1세 혼인보 산사 이래 제21세 혼인보 슈사이(秀哉)에 이르기까지 세습되었다. 그리고 혼인보 슈사이의 은퇴 1년 후인 1939년, 신문기전으로 혼인보전이 창설되는 것이다.

혼인보전은 오늘날 일본의 랭킹 3위 기전으로 간주된다. 이는 우승 상금의 순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통을 생각하면 기성전도, 명인전도 이에 크게 못 미친다. 혼인보전이 1939년에 창설된 데 대하여 기성전과 명인전은 각각 1977년과 1976년에 창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혼인보전의 우승자에게 부여되는 혼인보라는 호칭은 바둑 명문 혼인보가를 승계한 인물에게 부여된 호칭이기도 하므로, 그 호칭에는 그야말로 에도시대 이래 일본의 바둑 강자의 승계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인물 후지사와 히데유키가 기성위를 방어하는

18) 益川宏一 『ものと人間の文化史59 碁』法政大学出版局, 1987, pp.120-123 참조.

19) 명인기소(名人碁所)란 에도시대에 바둑의 실력자에게 부여되었던 직위로, 명인기소는 바둑계를 실질적으로 관할할 수 있었다.

데 전력한 것과 『히카루의 바둑』의 구와바라 혼인보가 혼인보위를 방어하는데 전력한 것은 그 의미가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후지사와 히데유키는 어디까지나 기성위가 당대의 랭킹 1위 타이틀이므로 기성위 방어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데 대하여, 구와바라 혼인보는 혼인보위가 당대의 랭킹 3위 타이틀이기는 하나, 혼인보가 에도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호칭이므로 혼인보위 방어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히카루의 바둑』에서 구와바라 혼인보는 일본의 바둑 전통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구와바라 혼인보는 일본의 바둑 전통을 표상하는 인물로 조형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점에서 『히카루의 바둑』이 일본의 바둑 전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후지와라노 사이의 조형의 의미

『히카루의 바둑』의 등장인물 중 가장 이색적인 인물은 후지와라노 사이(藤原佐為)라 할 수 있다. 사이(佐為)는 다른 등장인물과는 달리 히카루에게 빙의한 유령이기 때문이다.

『히카루의 바둑』은 히카루가 할아버지의 다락방에서 오래된 바둑판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할아버지의 바둑판에 깃들여 있던 유령 사이가 히카루에게 빙의한다. 사이는 헤이안시대(平安時代)에 천황의 바둑사범이었던 인물로 바둑을 두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사이는 천황의 또 한 사람의 바둑사범과 대국하게 되고 그 바둑사범의 비열한 행위에 마음이 동요되어 대국에서 지고 오명마저 뒤집어 쓴 채 자살해 버린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사이는 에도시대에 슈사쿠(秀策)²⁰⁾에게 빙의하고, 다시 현대에는 히카루에게 빙의한다. 히카루를 기사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이이므로 사이의 조형의 의미는 작품 이해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된다.

후지와라노 사이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은 아니다. 사이와 유사한 삶을 산 인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사이가 역사적으로 어느 시기의 인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연구가 되어 있다. 즉, 사이가 세이쇼나곤(清少納言)과 무라사키시키키부(紫式部)도 바둑을 즐기고 있었다고 궁중에서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사이가 섬기고 있던 천황이 이치조천황(一條天皇, 재위 986-1011)이라고 히카바둑연구회가 추정하는 바 있다.²¹⁾ 히카바둑연구회의 이 분석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이는 세이쇼나곤과 무라사키시키키부가 활약하던

20) 슈사쿠에 대하여는 본장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21) 히카바둑研究会 『『ヒカルの碁』の秘密』 p.54

이치조천황 시기, 부연하면, 일본에 귀족문화가 꽃피었던 시기의 인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분명히 귀족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바둑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작중 인물 사이는 귀족문화가 변영을 구가하던 시기의 인물이기는 하되, 천수(天壽)를 누린 인물은 아니다. 그는 오명 속에 억울하게 죽음을 택한 인물인 것이며, 오랜 세월을 지나 19세기에 슈사쿠에게 빙의한다. 『히카루의 바둑』을 독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왜 사이가 슈사쿠에게 빙의하고 다시 히카루에게 빙의하는가이다.

그 분석을 위하여 우선 실제 인물 슈사쿠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슈사쿠는 에도시대 후기의 바둑기사로 1829년 지금의 히로시마현(広島県) 인노시마시(因島市)에서 출생하였다. 아명(兎名)은 구와바라 도라지로(桑原虎次郎)였고, 나중에 이름을 야스다 에이사이(安田榮齋)로 개명하였다가 혼인보가에 입문하여 슈사쿠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 혼인보가에서 그 바둑 실력을 인정받아 혼인보 후계자로 임명되었다. 슈사쿠류 포석(秀作流布石)을 창시하고 여성기(御城碁)²²⁾ 19연승을 거두는 등 바둑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으나, 1862년 콜레라로 요절하였다.

슈사쿠는 여성기 19연승으로 당대 최고의 기사임을 입증하였고, 이적(耳赤)의 한 수²³⁾라는 가히 전설적인 묘수를 남기기도 하였다. 나아가 슈사쿠는 바둑의 역사에 손꼽히는 정상급 실력의 기사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역사상의 바둑 최강자가 누구인지 평가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기사들에 의해 끊임없이 신수(新手)가 시도되고, 또 기사들이 남긴 기보(棋譜)가 검토, 분석되면서 기사들의 실력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명 기사들의 실력은 현대로 올수록 전반적으로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사들이 남긴 기보를 검토하면 그 실력은 대체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기사들은 어느 기사가 역사상 최강이라고 보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이시쿠라 노보루는 슈사쿠를 역사상 최강의 기사로 꼽으면서 혼인보 도사쿠(道策)²⁴⁾, 그리고 우칭

22) 에도성(江戸城) 안에서 쇼군(將軍)의 임석 하에 두어진 바둑을 가리킨다.

23) 1848년 7월 슈사쿠와 이노우에 인세키(井上因碩)의 대국 시에 두어진 슈사쿠의 묘수. 이 수가 놓이자 이노우에 인세키의 귀가 빨개졌다고 한다.

24) 혼인보 도사쿠는 1645년 지금의 시마네현(島根県) 오다시(太田市)의 야마자키가(山崎家) 출신으로 14세에 제2세 혼인보 산에쓰(算悦)의 문하에 들어갔다. 제3세 혼인보 도에쓰(道悦)에 이어 제4세 혼인보가 되었다. 수 나누기 이론 등 현대에도 통용될 수 있는 바둑 이론을 제시하였고, 단위제(段位制)를 확립하였다. 역대 최강의 기사 중 한 명으로 흔히 평가된다. 1702년 별세하였다.

위안(吳淸源)²⁵⁾을 바둑의 격조를 높인 공로자라 하고 있다.²⁶⁾ 이에 대하여 조치훈(趙治勳)은 “옛 바둑에 정통한 기사들에게 양케이트를 한다면 우선 역사상 넘버원은 도사쿠일 것”²⁷⁾ 이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옛날의 역대 명인보다 현대의 챔피언 쪽이 분명히 강하다”²⁸⁾고 한다. 한편, 문용직은 바둑의 패러다임을 바꾼 이로 17세기의 도사쿠, 그리고 20세기 초의 우칭위안과 기타니 미노루(木谷実)²⁹⁾를 들며, 도사쿠는 바둑에 구조주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우칭위안과 기타니 미노루는 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를 재발견하였다고 한다.³⁰⁾

이와 같이 역사상 최강의 기사를 한 명만 꼽으라면 흔히 도사쿠, 슈사쿠, 우칭위안 등이 거명되며, 현대의 기사 쪽이 세다는 견해도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는 하되 슈사쿠의 바둑 실력이 역사상 정상급에 속한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히카루의 바둑』에는 주목되는 장면이 있다. 노년의 바둑교실 수강생에게 “바둑의 역사상 가장 센 사람은 누구입니까”(『ヒカルの碁』完全版 第1巻, 2009, p.52) 라는 질문을 받은 시라가와 7단이 ‘어느 기사가 그런 질문을 기자에게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며 “질문을 받은 기사는 곧 바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에도시대의 ‘혼인보 슈사쿠’라고요”(『ヒカルの碁』完全版 第1巻, 2009, p.53) 라고 답하는 장면이다. 『히카루의 바둑』은 슈사쿠를 역사상 최강의 기사로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히카루의 바둑』에는 사이가 슈사쿠에게 빙의한 것과 관련하여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설정이 존재한다. 사이는 히카루에게 빙의하여 “아이는 기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둑을 둘 수 있었습니다. 어성기를 두는 제1인자가 된 그는 불행하게도 전염병에 걸려……. 그의 이름은 혼인보 슈사쿠”(『ヒカルの碁』完全版 第1巻, 2009, p.53) 라고 자신이 슈사쿠에게 빙의하였던 시절을 회상하

25) 우칭위안은 1914년 중국 푸젠성(福建省) 출신으로 1928년 도일(渡日)하였다. 1933년에 기타니 미노루와 함께 ‘신포석’을 창시하였다. 1933-34년에 기타니 미노루와의 10번 승부에서 승리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1956년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대표적인 기사들과의 10번 승부에서 승리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기사로 군림하였다.

26) 石倉昇 『ヒカルの碁勝利学』, p.98

27) 趙治勳 『地と模様を越えるもの-趙治勳の囲碁世界-』 河出書房新社, 1999, p.123

28) 趙治勳 『地と模様を越えるもの-趙治勳の囲碁世界-』, p.127

29) 기타니 미노루는 1909년 일본 고베시(神戸市) 출생으로 1924년에 프로 기사가 되었다. 1933년에 우칭위안과 함께 ‘신포석’을 창시하였다. 1957-58년에 최고위 우승 등의 우승 경력이 있다. 기타니 도장을 운영하며 그 제자로 오타케 히데오(大竹英雄), 다케미야 마사키(武宮正樹), 고바야시 고이치(小林光一), 조치훈 등 일본 바둑계의 정상에 올랐던 기사들과 한국 바둑의 대표적 기사인 조남철(趙南哲), 김 인(金寅) 등을 양성한 공로도 크다. 1975년 별세하였다.

30) 문용직 『바둑의 발견』 도서출판 부키, 1998, p.34

여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이가 슈사쿠에 빙의하여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바둑을 둘 수 있었다는 것으로 사실상 슈사쿠가 둔 바둑은 사이가 둔 바둑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즉, 슈사쿠의 바둑 실력은 실은 사이의 바둑 실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히카루의 바둑』에서의 설정이며 슈사쿠에게 유령이 빙의하는 따위의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슈사쿠의 바둑실력은 어디까지나 슈사쿠 본인의 바둑 실력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 만화에서 사이가 슈사쿠에 빙의하여 바둑을 두었다고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이라는 인물의 바둑 실력이 바둑 역사상 정상급임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이가 히카루에게 빙의한다는, 이 작품의 또 하나의 설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사이가 히카루에 빙의한 동기에 대하여는 『히카루의 바둑』의 초반부에 사이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즉, “나에게 빙의한 것은 아직 바둑을 두고 싶어서야?”(『ヒカルの碁』完全版 第1卷, 2009, p.22) 라고 그 이유를 묻는 히카루에게 사이는 “왜냐하면 나는 아직……신(神)의 한 수를 체득하지 못했으니까”(『ヒカルの碁』完全版 第1卷, 2009, pp.22-23)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신의 한 수를 체득하기 위하여 사이는 히카루에게 빙의하였다는 것이다.

슈사쿠는 역사상 최강의 기사인 이적(耳赤)의 한 수와 같은 경이로운 수를 구사할 수 있는 인물, 신의 한 수에 가장 가까운 한 수를 구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수가 신의 한 수의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작품에서는 사이가 슈사쿠에 빙의하여 신의 한 수에 근접한 수를 구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수가 신의 수준의 수이지는 못한 때문에 사이는 그 수를 추구하고자 슈사쿠에 이어 히카루에 빙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이가 신의 한 수를 추구는 도정(道程)에 있는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사이가 이렇게 신의 한 수를 추구는 도정에 있는 인물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이 작품에는 역사상 최강의 기사인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슈사쿠에게 사이가 빙의한다는 설정이 행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4. ‘신의 한 수’와 바둑의 국제화

전장(前章)에서는 사이가 신의 한 수를 추구는 인물임을 파악하였고, 사이가 슈사쿠에게 빙의하고 다시 히카루에게 빙의하는 것은 바로 그 신의 한 수를 추구하기 위함임을 파악하였다.

그런데, 신의 한 수를 추구는 것은 사이만이 아니다. 이시쿠라 노보루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작품에는 신의 한 수를 추구하는 인물이 여럿 등장한다.³¹⁾ 그러나 이시쿠라는 이러한 지적은 하면서도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의미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고 있지 않다. 본장에서는 이들 인물들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분석하고, 나아가 국제화시대의 바둑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사이와 더불어 신의 한 수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도야 명인(塔矢名人)을 들 수 있다. 이 만화의 초반부에는 히카루와 함께 바둑교실에 다니는 어느 아주머니가 텔레비전의 천원전 중계를 시청하며 대국자 중 한 사람인 도야 명인에 대하여 “도야 명인, 이 사람 ‘신의 한 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들 해요”(『ヒカルの碁』 完全版 第1卷, 2009, p.57)라고 히카루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다. 이 말을 들은 사이는 도야 명인에 대하여 “나와 마찬가지로 신의 한 수를 체득하려는 이”(『ヒカルの碁』 完全版 第1卷, 2009, p.58)라고 생각한다. 도야 명인은 바둑 팬들에게 신의 한 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이에게는 신의 한 수를 추구하는 이라는 동류의식을 가지게 하는 인물이다. 또한, 도야 명인은 사이와의 인터넷 대국에서 패한 후에 사이와의 재대국을 염원하게 되는데, 이는 사이가 구사하는 수가 신의 한 수에 가깝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 작품에서 도야 명인은 사이의 라이벌적 위치를 점하면서 신의 한수를 추구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또한 신의 한 수를 추구하는 인물로는 히카루와 그의 동갑내기 라이벌 아키라(アキラ)를 들 수 있다. 아키라는 사이가 히카루에 빙의하여 아키라 자신과 둔 대국을 잊지 못한다. 그 바둑 내용에 압도된 아키라는 후일 “신도 히카루, 내가 목표로 하는 신의 한 수는 너를 추격하는 그 앞쪽에 있다”(『ヒカルの碁』 完全版 第2卷, 2009, p.117)고 되된다. 한편, 히카루는 차츰 바둑에 정진해 프로기사가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이는 “히카루가 신의 한 수에 이어지는 길을 내딛는다.”(『ヒカルの碁』 完全版 第13卷, 2009, p.70)고 느낀다. 그리고 프로기사가 된 히카루는 아키라에게 “신의 한 수는 내가 체득하겠다.”(『ヒカルの碁』 完全版 第17卷, 2010, p.77)라고 선언하기까지 한다. 히카루와 아키라는 동갑내기 라이벌로 서로를 의식하며 성장해 가는데, 이 두 인물에게는 신의 한 수를 체득하겠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사이, 도야 명인, 히카루, 아키라 등의 등장인물들이 신의 한 수를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사고(思考)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일까? 그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이 작품 내에 존재한다. 다음을 보기로 하자.

31) 石倉昇 『ヒカルの碁勝利学』, p.16

바둑판에는 9개의 성점(星点)이 있지? 여기는 우주야. 거기에 돌을 하나하나 놓는 거야. 별을 하나하나 늘리는 것처럼. 우주를 만들어 가는 거야. 마치 신과 같지. 나는 신이 되는 거야. 이 바둑판 위에서.

(『ヒカルの碁』 完全版 第2卷, 2009, p.31)

상기 인용은 히카루가 가가 데쓰오(加賀鉄男)라는 인물에게 하는 말이다. 이 인용에서 히카루가 말하듯이 바둑판에는 9개의 성점이 있다. 바둑판은 가로 19줄, 세로 19줄로 그어져 각 줄의 교차점이 되는 361개의 점이 존재하며, 바둑에서 착수할 수 있는 곳은 이들 361개의 점인데, 그 중 9개의 점은 성점이라 한다. 특히 이들 9개의 점 중에서도 바둑판의 정중앙(正中央)에 위치하는 점은 천원(天元)이라 한다. 성점이라는 용어는 바둑판에 돌이 놓이는 9개의 점을 별에 비유한 것이며, 천원은 글자 그대로 하늘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이들 용어로부터 바둑판 자체가 우주에 비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둑 용어를 근거로 전개되는 히카루의 논리이다. 히카루는 바둑을 두는 행위 자체가 우주를 만들어 가는 행위라는 것이며, 바둑의 세계는 우주의 질서와 연결되는 바가 있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이러한 히카루의 논리는 신의 한 수를 추구하는 이들의 논리에 잇닿아 있다고 생각된다. 바둑에는 우주의 섭리가 담겨 있으며, 최고의 바둑은 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바둑에서 최선의 한 수, 한 수를 두어나가는 것은 결국 우주의 궁극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여기에는 바둑의 세계가 궁극의 도(道)에 통하는 바가 있다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다. 요컨대 『히카루의 바둑』에서 바둑에의 정진은 곧 도의 추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만화에는 일본의 바둑 문화가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후지와라노 사이라고 하는 헤이안시대의 기사는 주인공 히카루에게 빙의하여 그를 기사의 길로 이끈다. 또, 후지와라노 사이는 에도시대의 천재 기사, 슈사쿠에도 빙의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 작품에서는 사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 일본 바둑의 현재와 과거가 연결된다. 헤이안시대에 사이가 즐긴 바둑은 에도시대에 발전을 계속하여 슈사쿠와 같은 대기사가 나타났다. 또, 바둑은 현재 히카루와 같이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바둑은 헤이안시대에도, 에도시대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많은 사람이 즐기고 있음이 이 작품 내에는 묘사되어 있으며, 여기에 표현된 것은 일본의 바둑 전통이다. 일본은 오랜 바둑 전통을 가진 나라이며, 특히 에도시대 이후, 일본은 독특한 바둑 문화를 낳았고 현대의 일본 바둑은 그 발전의 토양 위에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속성상에서 일본의 바둑은 발전해 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의 바둑이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도 발전해 가리라는 사실은 다음에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나는 히카루를 위하여 존재했다. 그렇다면, 히카루도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존재할 것이다. 그 누군가도 또한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천 년이, 이천 년이 그렇게 해서 쌓여 간다. 신의 한 수에 이어지는 먼 도정. 나의 역할은 끝났다.(『ヒカルの碁』完全版 第13卷, 2009, pp.137-139)

히카루에게 빙의하였던 후지와라노 사이는 히카루를 떠나 내세로 향하면서 상기 인용과 같이 속으로 생각한다.

헤이안시대의 사이가 슈사쿠에 빙의한 시기를 거쳐 현대에 히카루에게 빙의하기까지는 어언 천 년의 세월이 흘렀다. 천 년 전의 인물 사이는 히카루에 빙의하여 히카루로 하여금 신의 한 수를 추구하게끔 하였다. 그리고 히카루가 축적한 바둑의 한 수, 한 수는 누군가에게 계승되고, 그 누군가의 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승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듭하여 바둑의 수는 신의 영역에 점점 더 근접해 갈 것이다. 사이는 이러한 일종의 깨달음을 얻고 내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의 한 수에 도달하는 것은 일조일석에 가능한 것도 아니며, 어느 한 명의 특출한 천재에 의해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상기 인용의 ‘누군가’는 일본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누군가’는 일본인만이 아니라, 한국인, 중국인을 포함하여 바둑을 즐기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이, 히카루, 아키라, 도야 명인 이외에도, 이 작품에는 최선의 한 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고 있다. 히카루처럼 프로 기사를 목표로 하는 일본의 원생들, 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신예 기사의 단체전인 북두배(北斗杯)에 출장하는 한중일 3국의 기사들도 모두 최선의 한 수를 추구하는 바, 이들 또한 신의 한 수를 추구하는 인물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작품의 전개는, 바둑에 정진하는 것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중국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히카루의 바둑』은 바둑의 추구를 곧 도의 추구로 보는 관점의 작품이며, 이러한 관점은 일본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한중일 3국의 신예 기사의 단체전인 북두배의 이야기로 끝난다. 이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에 국제기전(國際棋戰)이 생겨나 바둑이 국제화시대를 맞이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제기전이 생기기 이전, 일본은 세계 최강의 바둑 강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국제기전이 창설된 후, 한국과 중국의 프로 기사들은 더욱 더 강해져,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 기사들이 국제기전의 대부분을 석권하였고, 현재는 한국과 중국의 기사들이 국제기전의 우승을 다투는 형세가 되었다.³²⁾ 이와 같이 국제기전에서 일본의 기사들이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 반영되어 이 작품에는 한국과 중국의 기사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본의 신예 기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히카루의 바둑』에서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한중일 3국의 기사들의 바둑에 대한 구도자적 자세이다. 이 작품은 북두배에 출전한 한국의 고영하(高永夏), 일본의 히카루라는 두 기사의 인상적인 대사로 끝맺는다. 다음은 각각 작품 말미 고영하와 히카루의 대사이다.

먼 과거와 먼 미래를 잇기 위해 내가 있다? 우리는 모두 그렇잖아.(『ヒカルの碁』完全版 第20卷, 2010, p.158)

먼 과거와 먼 미래를 잇기 위하여, 그걸 위해 있는 거다. 나는, 우리는, 누구라도.(『ヒカルの碁』完全版 第20卷, 2010, pp.164-165)

북두배의 한일전에서 고영하와 히카루는 주장으로 승부를 겨룬다. 고영하는 접전 끝에 승리한 이후, 바둑을 두는 이유에 대해 히카루가 대국 전에 말하려 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 대답을 구한다. 이에 대해 히카루는 “먼 과거와 먼 미래를 잇기 위하여.”(『ヒカルの碁』完全版 第20卷, 2010, p.155)라고 답한다. 그리고 이 히카루의 대답에 대하여 고영하가 말한 것이 상기 인용의 윗부분의 문장이다. 한편, 상기 인용의 아랫부분의 문장은 히카루가 대국장을 나서면서 마음 속으로 되뇌이는 생각이다. 히카루의 이 생각은 히카루와 원생시절을 함께한 일본의 기사들, 북두배에 출전한 중국의 기사들, 그리고 아키라, 북두배에 출전한 한국기사들, 도야 명인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떠올려진다.

히카루가 보여주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기 위하여 바둑을 둔다는 자세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추구하는 자세이며, 이는 구도자적 정신을 가지고 바둑을 추구하는 자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히카루 뿐만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모든 기사들에게 공통되는 자세이다. 이 인물들이 바둑을 구도자적 정신으로 대하고 있음이 오버랩 기법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32) 현존하는 국제기전 중 대표적인 기전으로는 비씨카드배 월드바둑챔피언십, LG배 세계기왕전,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즈, 춘란배(春蘭杯) 세계바둑선수권, 세계바둑선수권 후지쓰배(富士通杯), 응씨배(應氏杯) 세계선수권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가장 역사가 오랜 기전으로는 1988년에 창설된 후지쓰배와 1989년 창설된 응씨배를 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 두 기전에서의 우승자를 살펴보면 세계 최강의 바둑 강국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후지쓰배에서는 조치훈을 포함하여 일본에서 활약하는 기사가 우승하는 흐름이 1988년 기전이 출범한 이후 1992년까지 계속 되었으나, 1993년 이후는 1997년에 고바야시 고이치가 우승했을 뿐이다. 또, 1989년 출범 이후 4년에 한 번 씩 개최되는 응씨배에서는 일본에서 활약하는 기사들의 우승 경력이 전무하다. 이들 대회에서는 한국 기사들이 가장 많이 우승하였으나, 최근 몇 년 간은 한국 기사들과 중국 기사들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

5. 결론

『히카루의 바둑』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은 ‘신의 한 수’ 라는 말일 것이다. 이 말에는 바둑의 궁극의 수는 곧 신의 영역에 속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신의 한 수를 즐기치게 추구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한다. 후지와라노 사이, 도야 명인, 히카루, 아키라, 히카루와 원생시절을 함께한 일본의 기사들, 북두배에 출전한 한중일 3국의 기사들은 모두 신의 한 수를 추구하는 인물들이다. 이 인물들은 구도자적 정신을 가지고 바둑에 정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바둑이 궁극적으로는 ‘도’를 추구하는 것과 통한다고 하는 사고가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바둑에의 정진은 도의 추구하고 상통하는 바 있다는 바둑관이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일본의 바둑의 전통에 대한 긍지와 찬미가 드러난다. 현대 일본의 바둑은 일본의 오랜 전통에 의한 것임을 구와바라 혼인보, 후지와라노 사이와 같은 인물들의 조형을 통하여 그려내고 있다.

나아가, 이 작품은 국제화시대를 맞이한 현대의 바둑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북두배라는 국제기전에 등장하는 한중일 3국의 신예 기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바둑은 이제 국경을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고, 후대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문화 자산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히카기研究会 『『ヒカルの碁』の秘密』データハウス, 2002
石倉昇 『ヒカルの碁勝利学』集英社インターナショナル, 2002
ほったゆみ 原作・小畑健 画 『ヒカルの碁』完全版 全20巻, 集英社, 2009-2010
水口藤雄 『囲碁の文化誌』日本棋院, 2002
정수현 『바둑학개론』에듀컨텐츠, 2011
문용직 『바둑의 발견』도서출판 부키, 1998
趙治勲 『地と模様を越えるもの-趙治勲の囲碁世界-』河出書房新社, 1999
ほったゆみ・梅沢由香里 「特別対談：子どもたちに伝えたい〈碁〉の魅力」, 吉田直樹 『子供を育てる碁学力-『ヒカルの碁』から始める教育術-』集英社, 2009
益川宏一 『ものと人間の文化史59 碁』法政大学出版局, 1987

要 旨

ほったゆみ原作、小畑健画、梅沢由香里監修の漫画『ヒカルの碁』はアニメーションとしても製作され、話題になった。ところで、この作品には日本の囲碁文化の様々な側面が描かれている。したがって、この作品は囲碁観をはじめとした囲碁文化などを視野に入れ、考察する必要がある。本稿ではこのような観点から『ヒカルの碁』を日本の囲碁文化と関連させ分析した。

『ヒカルの碁』には〈神の一手〉を追求する人々が登場している。藤原佐為、塔矢名人、ヒカル、アキラ、ヒカルと院生時代をいっしょに過ごした日本の棋士たち、国際棋戦北斗杯に参加した韓国と日本と中国の棋士たちは神の一手を追求する人々である。この人々はまるで求道者のように囲碁に精進している。ここには、囲碁が究極的には〈道〉を追求することと一脈通じるという思考があらわれている。この作品の基底には囲碁への精進は道の追求と一脈通じるという囲碁観がある。

また、この作品には日本の囲碁の伝統への誇りと賛美があらわれている。現代日本の囲碁は日本の長い囲碁伝統によるということが桑原本因坊、藤原佐為のような人物の造型をとおしてよく描かれている。

さらに、この作品は国際時代を迎えた現代の囲碁を肯定的に捉えている。韓国と中国と日本の若手棋士たちをとおして囲碁は、国境を越えて多くの人々に共有され、これから後の世代にも伝えられる文化であることを表現してい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囲碁文化、神の一手、本因坊、道、日本の囲碁の伝統、国際化時代の囲碁』

투 고 : 2011. 8. 31
1차 심사 : 2011. 9. 10
2차 심사 : 2011. 10. 1